

'비교'의 장벽을 깨뜨리고 넘어서야 한다

- “禍는 福에 기대어 있고 복은 화 속에 숨어 있다”고 한 노자의 말은 재앙 속에 행복의 싹이 숨어 있고 행복 속에 재앙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뜻이다.
- 속세에서의 행복은 굉장히 기형적이다. 그로 인해 가족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존엄성마저 잃는다는 사실이다.
-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실패도 없다. 성패이외에 더 넓은 인생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라

- 다름과 차이 중 어느 하나에만 집착하면 인간관계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원망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마주치는 모순, 충돌, 곤경이 대부분 이런 편견에서 비롯된다. 편견은 생활을 편협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 언제 어디서나 合一의 이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하나이며 둘일 수 없다.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 성공이든 행복이든 그 단어들이 요구하는 것은 존재의 한쪽 면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쪽을 잊고 오로지 하나만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다.
- 사람이 수행하고 깨닫는 것은 천천히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다 존재 바다와 같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한쪽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좁고 음침한 도랑에서 살지 말고 끝없이 넓은 바다에서 살라. 성공이든 행복이든 인생의 수많은 모습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다.

-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어리석은 망상이자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성공만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